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참없존가

1주차	일시	4월 1일 15: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서영(2431185)	O
		전예림(2411160)	O
		김수민(2491006)	O
		정민희(2571410)	O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8p.~202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전예림, 정민희, 김수민, 박서영] 박서영: 매우 유명한 책이라 언젠가 꼭 읽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책인데, 읽어보니 기대 이상으로 철학적이고 다소 무거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장인물 4명의 성격, 행동 모두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으며, 그들이 지향하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서로를 만나며 변화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독서토론 시간에는 교수님과 책 관련 내용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며, 이 책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 공부해오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들어 다음 시간까지 배경지식, 그리고 작가에 대한 조사를 각자 하기로 하였다. 전예림: 책 202쪽까지 읽어봤을 때, 내가 더 깊게 생각하고 싶은 키워드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았다. '모성애', '우연', '바람', '동정심', '현기증', '배신'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왜 선택했고, 어떻게 얘기 나눠보고 싶은지 등을 그것에 걸맞는 대사와 함께 얘기하면서 모두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었다. 또한 이 책은 한 번만 읽기에, 그리고 아무런 정보 없이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도 교수님의 말을 참고하여 각자 다음 만남까지 배경지식과 작가에 대한 사전학습을 해하기로 했다. 김수민: 이 책의 제목이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나누다는 게, 누군가에게 가벼워도 누군가에게는 무거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희: 각 인물들에 대한 첫 인상? 토마시: 요새 유행하는 MBTI로 캐릭터를 분석해 본다면 토마시는 ESTP유형인 것 같다. 나도 ESTP유형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더욱 토마시에게 몰입이 잘 되어서 재미있게 읽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토마시는 아주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일 것 같다. (ex. 차은우...) 테레자: 테레자는 토마시와 정 반대인 성격으로 INFJ일 것 같았다. 생각이 많고 상대적으로 토마시는 가벼운 사람이라면 테레자는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았고 서로 너무나 달라서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테레자의 외모는 수수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여성이 떠올랐다. 사비나: 사비나는 예술가이고 토마시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여자였으며 토마시랑 마찬가지로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프란츠를 배신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며 사비나와 토마시가 진짜 천생연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둘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테레자가 안쓰러워 지기도 했다...	

2주차	일시	4월 8일 15:00 비대면 줌 수업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서영(2431185)	O
		전예림(2411160)	O
		김수민(2491006)	O
		정민희(2571410)	O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200p.~300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전예림, 김수민, 정민희, 박서영] 박서영: 저번 시간에 받은 교수님의 피드백에 따라 이 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작가(밀란 쿤데라)에 대해 조사하였다. 밀란 쿤데라는 본래 체코인인데, 이 책의 역사적 배경인 프라하의 봄 시기에 프랑스로 망명하여 새 삶을 꾸렸다고 한다. 이 책 또한 체코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출간하였다는데, 사랑하는 조국을 그토록 외면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 어떤지 더욱 궁금해졌다. 역사적 배경은 소련군의 반민주 침공으로 인하여 체코가 점령당한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공감하며 읽었다. 독서 토론 시간에는 이러한 나의 사전학습 내용을 공유하였고, 300p까지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토론하였다. 전예림: 책을 마저 완독하기 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각자 사전학습을 해오기로 했다. 작가 밀란 쿤데라의 삶과 책의 시대적 배경, 특히 '프라하의 봄'에 대해서 알아봤다. 프라하의 봄은 1968년 봄에 일어났던 체코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반작용으로 그 해 여름에 소련군의 무참한 무력 침공이 일어났던 시기를 말한다. 작가는 프라하의 봄을 포함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아픈 역사를 직접 체험한 피해자였으며 이는 책에 많이 반영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작가는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개인 실존의 문제를 은폐한다고 보았고 이 책을 통해 전체주의 공산체제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짓밟았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원래는 인간과 사랑에 대한 책으로 가볍게 보았다면, 사전학습을 하고 나서 책을 다시 보았을 때 더욱 무겁게 다가와졌다. 개개인의 삶과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있다. 가벼움과 무거움을 넘나들며 인간과 인생의 모순과 양면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다음 모임까지 책을 완독해오고 각자 토론 주제로 쓰일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올 예정이다. 김수민: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8년, 체코에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며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고, 강력한 검열과 통제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도 침체되고 국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는데, 이때 프라하의 봄이 일어난다. 이러한 책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 책 속 인물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잘되었다. 정민희: 교수님께서 참여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책의 이상한 특징 중 작가가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읽어보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작가의 등장을 발견하게 되어 흥미로웠고 책의 흐름이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되었음. (p.122)	

3주차	일시	5월 13일 15: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서영(2431185)	O
		전예림(2411160)	O
		김수민(2491006)	O
		정민희(2571410)	O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5부까지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전예림, 박서영, 김수민, 정민희] 박서영: 동정이 사랑인가? 에 대하여 나는 사랑을 하며 사랑하는 이에 대한 동정심은 한때 들 수 있고, 동정에서 시작하여 그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시작이 동정이면 어떨까? 그러나 동정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사랑이 아니다. 전예림: 이번 모임에는 책 5부까지 읽고 각자 토론하고 싶은 질문을 생각해 오기로 했다. 교수님과 함께 책에 대한 감상을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가져왔는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얘기했다. 내가 가져온 질문은 이렇게 있다. 1. 키치란 무엇인가? 2. 영혼과 육체 중 무엇이 더 앞서는가? 또는 본질과 실존 중 무엇이 더 앞서는가? 3. 토마시가 테레자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동정하는 걸까? 4.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은 과연 다른가? 혹은 나눌 수 있는가? 5. 모르는 게 약일까, 아는 것이 힘일까? 나는 이 중에서 1번과 3번을 중점으로 팀원들에게 내 생각을 나눴다. 김수민: 토마시의 외도를 보고 그냥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되는 인물이었는데, 정말 테레자를 사랑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사랑과 욕망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토마시가 테레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외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희: 전반부에서는 주로 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집중을 했다면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전반부에서 인물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그로 인한 갈등을 직면하는 시점을 자세히 다뤘기에 소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음.	

4주차	일시	5월 27일 15: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서영(2431185)	X
		전예림(2411160)	O
		김수민(2491006)	O
		정민희(2571410)	O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완독
	토론 내용	[좌측부터 전예림, 정민희, 김수민] ※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토론내용 작성 전예림: 저번 모임에 이어 '키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고 팀원들과 함께 얘기해 봤다. 키치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에 대한 미학적 이상'이며, 가벼움에 대한 절대적 부정인 동시에 아름다운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다. 즉 인간 존재가 지닌 것 중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키치의 문제점은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을 때 전체주의, 독재 사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점은 삶은 왜곡한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을 흘리는 자기 자신에게 감동해서 두번째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이 두번째 눈물이 키치라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려나온 것이 아닌 사회가 주입한 이념에 의해 출력된 반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야 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수민: '키치'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키치는 누구나 갖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인 것 같다. 작가는 키치라는 가벼움과 공허한 삶에 빠지지 않고, 무게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벼움의 상징인 사비나와 토마시가 사귀고, 무거움의 상징인 테레자와 프란치가 사귀면 싸울 일도 없고 더 잘어울리지 않나??라는 말을 나눴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니 가벼움의 상징이었던 토마시가 테레자를 만나고 덜 가벼운 사람이 되었고, 테레자는 덜 무거운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간의 균형을 찾아주었다고 생각했다. 가벼움과 무거움의 균형을 찾은 토마시와 테레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맞는 한 쌍이 되었고, 이 책은 이를 통해 가벼움과 무거움의 균형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정민희: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읽으며 '키치'라는 개념을 알게 됨. 읽을수록 이 키치라는 것이 책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가 만든 모든 가상의 인물들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됨.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박서영 (2431185)	좋아하는 가수의 책 추천 리스트에 있어 언젠가는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드디어 완독했다 책 내용이 대체로 1인칭에서 3인칭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서술 구조이기도 하고, 문장 하나하나에 특정 인물의 가치관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 읽는 데 조금 오래 걸렸다. 쉽게 읽히는 책도 좋지만, 이 책처럼 곱씹으며 N회독을 할 때 이해가 되는 책이 오래 생각나는 것 같다.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타 독서부원들도 이해가 힘들었는데, 끝까지 함께 읽으면서 토론해서 뿌듯했다.
	2	전예림 (2411160)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원래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이번 독서클럽을 기회 삼아 도전할 수 있었다. 워낙 진입장벽이 높은 세계 고전이고, 두께도 두꺼워서 읽는 게 힘에 부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토론할 거리가 너무 충분했고, 한 달을 얘기해도 부족할 듯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독서클럽처럼 읽고 토론하기 위한 책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짧은 활동 기간동안 더 많이 얘기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또한 이 책은 한 번만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나중에 다시 한 번 읽고 싶어 졌다. 독서클럽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책과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이렇게 제대로 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고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
	3	김수민 (2491006)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앞페이지 5장 정도를 5번 이상 읽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철학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중반까지 읽었을 때는 인물의 행동 하나하나 다 이해가 안돼서 그만 읽고 싶었지만, 끝까지 읽었을 때는 테레자와 토마시의 결말이 마음에 들었고, 어려운 책을 다 읽었다는 데에서 오는 뿌듯함도 있었다. 만약 독서클럽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절대 끝까지 못읽었을 것 같다. 키치란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회피하고 달콤한 환상만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사비나와 토마시는 키치를 인지하고 키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이고, 테레자는 신분 상승을 위해 책을 들고 다니는 자신에게 심취해있는, 남의 시선을 신경쓰는, 키치에 얽매여있는 인물라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키치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키치라는 가벼움과 공허한 가벼운 삶에 빠지지 않고, 무게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책을 읽으면서 토마시와 사비나는 가벼움을, 테레자와 프란츠는 무거움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키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물들은 사비나와 토마시였고, 오히려 테레자는 키치에 얽매여있는 인물이었다. 책을 읽으며 각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누구나 하나씩은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반에는 무거움을 추구하는 테레자와 가벼움을 추구하는 토마시가 안 맞는 한 쌍이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가벼운 토마시와 사비나가 만나고, 무거운 테레자와 프란츠가 만나면 싸울 일도 없고, 서로를 잘 이해해서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었을 땐, 가벼움의 상징이었던 토마시가 테레자를 만나고 덜 가벼운 사람이 되었고, 테레자는 덜 무거운 사람이 됨으로써 서로간의 균형을 찾아주었다고 생각했다. 가벼움과 무거움의 균형을 찾은 토마시와 테레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맞는 한 쌍이 되었다. 이 책에는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P.506)라는 문장이 있다. 나는 이 문장이 테레자와 토마시의 삶을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한다.
	4	정민희 (2571410)	독서클럽이라는 기회를 통해 평소 읽지 않는 종류의 책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은 어렵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읽어보니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것은 없었고 오히려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독서클럽을 진행하며 책과 토론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다른 활동도 자발적으로 더 찾아 하게 되어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